

OECD DAC 동향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기획실 정책연구팀

[주요 내용]

1. Development Issue

- (1) 기후금융
- (2) 삼각협력

2. DAC 회원국 동향

- (1) 네덜란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750 백만 유로 규모 Dutch Good Growth Fund 조성(10.4)
- (2) 일본(JICA), 니카라과와 인도에 차관 승인(10.9, 11.12)
- (3) 프랑스(AFD),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최대 규모 풍력발전소 건립에 협조융자 제공(11.6)

3. OECD/DAC 주요 일정 (12.1-12.31)



1. Development Issue

(1) 기후금융

□ (현황) 세계은행은 2020년까지 개도국에 필요한 기후금융의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

- 한편 대기 중의 Co2 수치를 450ppm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개도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연간 최대 6750억 달러로 추정

* 전세계 이산화탄소 농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은 하와이 마우나로아산(해발3400m)으로, 최초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1958년의 수치는 315ppm이었으며 매년 평균 0.7ppm씩 상승하다 '12년 400ppm을 초과하였으며 연간 2.1ppm씩 상승 중. 이에,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 수치를 450ppm 이내로 유지하려는 목표 설정.

□ 3개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후금융 재원이 마련되고 있음

① 기후변화협약(UNFCCC) 재정 메커니즘

- 글로벌환경기금(GEF)에 의해 운영되는 기금으로 최빈국기금(LDCF; '12년 기준 5.3억 달러)과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12년 기준 2.4억 달러)이 있음

- 최빈국기금은 기후변화 적응 역량이 부족한 최빈국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며, 특별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과 관련된 사업뿐 아니라 완화(mitigation)와 관련된 개발 사업도 지원

② 교토 프로토콜 메커니즘

- 교토적응기금(Adaptation Fund; '11년 기준 1.9억 달러)으로 교토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획득한 탄소배출권의 2%를 개도국 적응 비용으로 지원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달성하는 목적의 체제(교토 의정서 제12조)

③ 다자 기금 메커니즘

- (세계은행) 글로벌환경기금의 파트너이지만 독자적인 재정으로 공여국과의 협조유자를 통해 글로벌환경기금보다 큰 규모의 기후투자기금(CIF; '12년 기준 77억 달러)을 운영
 - (녹색기후기금:GCF) 제17차 UNFCCC 당사국 총회(COP-17)에서 190개 국가들이 지지로 탄생한 기후금융 관련 국제기구로, 향후 가장 적극적인 기후금융 재원으로 대두
 - 프로젝트를 스스로 만들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영구적인 조직으로, 세계은행 안에 조성되어 목표 달성 후 해체되는 글로벌환경기금이나 기후투자기금과 차별화
 - 이전까지의 환경기금들과는 달리 민간재원까지 기후금융에 포함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
 -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사무국 유치 ('13.12.4 개소)
- (쟁점) 개도국에 소요되는 막대한 기후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규모 확대와 전반적인 기후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으나, 기후금융에의 참여 범위, 기후금융의 출처, 기후금융 조성 방식 등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

① 참여 범위

- 과거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재원 조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개도국이라는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견이 존재
- 따라서, 최근에는 최빈국을 제외한 모든 개도국이 기후금융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주인의식 강화를 위한 계기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등장

② 기후금융의 출처

- 공공재원이 개도국 내 기후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취약국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 의견
- 그러나 개도국은 기후금융 지원은 선진국의 공적자금이 우선되어야 하며 민간재원은 공공재원에 대한 보완 역할을 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막대한 기후금융을 공공재원만으로 충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

③ 기후금융 조성 방식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이라기보다는 자국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하여 선진국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

(2) 삼각협력

□ (개념) 국제개발협력에서 하나 이상의 공여국 혹은 국제기구가 남남협력 관계를 지원하여 국가 간의 개발협력 지식·경험 공유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파트너십 체제

- 비교적 신생 개념으로서, 국제적으로 명확히 정의 내려진 바 없어 ('there is no internationally agreed definition', OECD DAC HLM 2012 문건 *Triangular co-operation*) 경우에 따라서는 NGO나 민간기업도 삼각협력의 꼭짓점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하며, 삼각 꼭짓점 모두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고 보기도 함

- 'triangular co-operation' 외에, 'trilateral co-operation', 'trilateral assistance', 'tripartite agreement' 등의 용어도 같은 개념 표현에 사용됨

□ (참여자) '09년 OECD 설문에 의하면, 23개 DAC 회원국 중 16개 회원국*이 삼각협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

* 벨기에, 태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유럽연합

- 국제기구의 경우, UNDP 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과 UN ECOSOC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이 삼각협력에 적극적이며 국제기구에서는 삼각협력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개별 국가보다 삼각협력을 더 활용

□ (삼각협력의 특징)

- 개발도상국의 공여국으로서의 역량 개발
- 남남협력 참여국과 공여국 간 협력 관계 및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관계* 등 국가 간 양자 협력 관계 강화

* 브라질-포르투갈어권 아프리카 국가 간 삼각협력 등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삼각협력은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2. DAC 회원국 동향

(1) 네덜란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7.5억 유로 규모 Dutch Good Growth Fund 조성(10.4)

- 네덜란드 내 중소기업과 개도국 내 중소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동 펀드는 2017년까지 총 7.5억 유로 조성 예정
 - 동 펀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창출, 지식공유, 생산 역량 제고 등 개도국의 ‘발전’이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무
 - 펀드의 일부를 차관으로 제공하며, 상환액을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운용
 - 펀드 조성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 외에 법제 정비도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도국 무역·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원화된 기구를 설립할 예정

(2) 일본(JICA), 니카라과와 인도에 차관 승인

- 니카라과 지속가능한 전기 공급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2천만 달러 승인(10.9)
 - 소규모 수력발전소 4기 건립 및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설치 등
 - 앞서 '12.3월 IDB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협조융자 프레임워크에 합의하였으며, 이번 승인은 동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프로젝트
- 인도 Tamil Nadu 투자 진흥 프로젝트에 1.3억 달러 승인(11.12)
 - 인도에 최초로 제공된 프로그램 차관으로, Tamil Nadu 지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지원 예정
 - Tamil Nadu의 주도인 첸나이에서 진행중인 JICA 프로젝트인 첸나이-방갈로 산업회랑 건립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3) 프랑스(AFD),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최대 규모 풍력 발전소 건립에 협조융자 제공(11.6)

- 에티오피아 북부에 완공된 Ashegoda 풍력발전소는 사하라이남 최대 규모(120MW)로, AFD의 이번 참여는 에티오피아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참여 확대 계기가 될 전망
- 총 사업자금은 2.3억 유로로, AFD-프랑스민간은행컨소시엄 (BNP파리바, CIC, 쏘시에떼제네랄 참여)-프랑스무역보험회사 (Coface)를 통한 정부 보증으로 구성되었으며, AFD는 이 중 4천5백만 유로(19.4%) 출자



3. OECD/DAC 주요 일정 (12.1-12.31)

	DAC 정례회의
	스위스 동료평가 최종회의
	Discussion on '2015 World Development Report'
	DAC Development Debate: SDG(지속가능한개발목표)와 MDG(새천년개발목표)